

포퍼의 사회과학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박 만 엽

이론(가설)은 그물과 같다. 그물을 던지는 사람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노발리스-

주제분류 사회철학

주요어 사회과학 논리, 실증주의 논쟁, 반증주의, 가설연역적 방법, 비판적 합리주의, 열린사회, 생활세계

요약문

이 논문은 포퍼의 사회과학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논문에서는 포퍼의 사회과학에 대한 정당화와 같은 문제들이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1) 실증주의 논쟁과 포퍼의 반증주의. 잘 알려진 것처럼, 포퍼는 거짓의 유용성을 반증주의와 관련시킨 독특한 철학자이다. (2) 포퍼의 『사회과학의 논리』에서 제시된 그의 사회과학방법론. 또한 필자는 아도르노, 하버마스, 파이어아벤트를 중심으로 포퍼의 사회과학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논한다. 포퍼의 사회철학이 ‘비판적 합리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그의 사회철학은 ‘열린사회’로 불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의 비판적 합리주의는 삶과 철학의 경계를 구분해야만 하는 이론의 구성에 그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보수주의자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포퍼의 사회과학방법론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과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은 같은 범주 체계로 양립가능하지 않다. 둘째, 포퍼의 사회과학방법론은 분배적 정의가 실증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1. 들어가는 말

현대를 일컬어 흔히들 포스트모던의 시대 혹은 다원화된 변화의 시대라고들 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개인들의 다양한 사고방식들이 중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복잡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이 문제는 개인과 공동체 간의 갈등 국면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맞닿는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에는 정치와 경제가 맞물리면서 비롯되는 이른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불안정한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잠복해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와 경제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적 요인들(국가와 개인, 빈부격차, 노사 간의 갈등, 비정규직 근로자, 개발과 환경보전, 공기업의 민영화, 공교육과 사교육 등의 문제들)이 생활세계에서 폭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논문은 포퍼의 사회과학 논리의 정당성 여부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비판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실증주의 논쟁과 포퍼의 반증주의를 논의하면서, 진리탐구를 위해 모든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의 방법론적 입장을 살핀다. 3절에서는 포퍼의 「사회과학의 논리」에서 제시된 27개의 테제를 중심으로 그의 사회과학 방법론을 살핀다. 4절에서는 아도르노와 하버마스 그리고 파이어아벤트를 중심으로, 포퍼의 사회과학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포퍼의 사회과학논리는 생활세계에서 비롯되는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¹⁾ 그 주된 이유는 철학

1) 여기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세계’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생활세계 개념은 ‘삶을 헤쳐 나가는 실천’(Praxen der Lebensbewältigung)과 연계되는 개념으로, 이는 다시 기존하는 인간의 실천 영역들은 삶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인간의

을 실천(활동)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이론을 구축하는 학문으로 보려는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는 결과적으로 삶과 철학의 경계를 구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퍼는 정치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보수주의자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2. 실증주의 논쟁과 포퍼의 반증주의

방법론 논쟁으로 잘 알려진 실증주의 논쟁은 1961년 독일 튜빙겐에서 개최된 독일 사회학회의 비공개 학술 토론회에서 포퍼가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대한 견해를 27개 тезис의 형식으로 묶어 ‘사회과학의 논리’를 발표하고, 아도르노가 이에 대한 반론으로 ‘사회과학의 논리에 관하여’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1963년에는 하버마스가 이 논쟁에 뛰어 들었고, 이어서 포퍼를 지지하는 진영에서는 알버트가 다음 해에 하버마스의 논의를 반박하면서 이 논쟁은 이른바 혁명을 표방하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과 점진적 개혁을 내세우는 비판적 합리주의의 대결로 발전하였다. 나중에 기든스는 이 논쟁의 성격을 마치 ‘왕자없는 햄릿’과 같았다고 논평하기도 했다.²⁾

1969년에는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논문을 모은 『독일 사회학회에서의 실증주의 논쟁』(*Der Positivismusstreit in der Deutschen Soziologie*) 이 출간되었다. 이 책이 나오자 포퍼는 아도르노와 하버마스와 같은 학

욕구들을 해결해주고 있음을 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해, 생활세계적 실천이란 우연히 출현하는 인간의 사치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삶의 조건과 삶의 요구 조건 하에서 ... 인간의 여러 욕구 조건들 하에 나타나 실천되는 그러한 인간 행위 영역을 말한다.” 페터 야니히[2004], 38쪽.

- 2) Adorno[1969]의 영역 본에 실린 Frisby의 ‘Introduction to the English Translation’, 참조. 실증주의 논쟁은 실증주의에 대한 양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는 실증주의가 과학주의에 경도되었음을 비판하는 반면, 포퍼와 알버트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변증법이 비이성적이라고 공격한다. 이하 상세한 논의는 권기철[2006], 『헤겔과 독일 관념론』, 철학과현실사, 344~347쪽 참조할 것.

자들이 자신의 논문에 대해 진지한 비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글을 한 가운데 놓고는 자신과 같은 실증주의자는 정치적 현 상태를 옹호한다는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자신의 논문이 본래적 의도와는 달리 ‘말의 바다’ 속에 빠지고 말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³⁾ 그러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성격이 잠재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 포퍼와 알버트 진영과는 첨예한 대립적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⁴⁾, 긍정적 측면에서 전체주의를 부정하고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의 부도덕성 및 비인간성의 문제를 통찰해보려는 점에서는 양진영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포퍼의 사회철학은 자신의 과학철학을 사회철학에 연장한 결과로서 흔히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로 알려져 있다. 포퍼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사회철학은 ‘아는 것이 힘이다’를 주장한 베이컨이나 플라톤의 ‘철인정치’와 마찬가지로 거짓된 합리주의와 유토피아적인 이상에 도취된 결과라고 비판한다. 그는 이성에 기초한 진정한 합리주의야말로 권력과 폭력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⁵⁾ 포퍼는 “서로 주고받는 태도야말로 이성적인 자세다”⁶⁾라며 합리적 토론과 비판을 중시했다. 여기서 포퍼가 말하는 합리주의란 서로간의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이론과 사회를 개선시키는 태도를 말한다.

포퍼의 사회철학의 밑바탕을 이루는 그의 과학철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등장과 뉴턴 역학의 몰락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포퍼로 하여금 진정한 과학과 사이비 과학을 구분해주는 ‘구획기준’(criterion of demarcation)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해주었다. 근대 역학이 대두한 이래 200여 년간 절대적인 진리로 통용되어 온 뉴턴

3) Popper[1969b], 291쪽.

4) 1920년대 비엔나 서클로부터 나온 논리실증주의가 비판이론가들과 갈라서게 된 것은 호르크하이머의 ‘도구적 이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주장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검증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5) Popper, “Utopia and Violence”, in Popper[1963], 363쪽.

6) 같은 책, 357쪽.

물리학의 몰락을 지켜 본 포퍼는 진리가 과학 이론이 지닌 특징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르렀다.

과학 이론은 진리를 목표로 하고 진리를 지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리를 이미 획득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은 아니다. 뉴턴 역학의 몰락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리 견고한 과학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뒤집힐 운명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뉴턴 물리학을 뒤엎고 나온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역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보다는 오히려 경험적 방법에 의해 반증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인 이론으로서 과학 이론 내지는 명제가 지니는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포퍼는 경험적인 반증이 (원리적으로 가능한) 명제만을 진정한 경험의 토대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반증가능성의 원리’(principle of falsifiability)를 주장한다. 이에 대해 그는 『탐구의 논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론의 과학적 자격의 기준은 그 이론의 반증가능성, 반박가능성, 혹은 시험가능성이다.⁷⁾

반증가능성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마르크스의 역사이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아들러의 개체심리학 등의 이론은 진정한 과학 이론과 대비된다. 그 이론들은 무엇이나 자신들의 입장에 맞추어 설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 이론의 경우에는 미래를 예언하기도 한다. 그러나 포퍼는 이러한 특징들이 그러한 이론들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로부터 과학적 이론의 자격이 박탈되고 있음을 지적한다.⁸⁾ 다시 말해서 그러한 이론들은 경험적으로 반증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아닌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방법에 관한 포퍼의 이론은 반증 가능한 명제를 과학적 명제로

7) Popper[1968], 37쪽.

8) “우리는 합리적 혹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우리의 과학적 지식이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지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역사의 미래 과정을 예측할 수 없다.” Popper[1960], 서문 참조.

보는 그의 입장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과학 명제를 절대 진리로 본 과거 철학자들의 과학적 방법론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아 일차적 경험으로부터 과학적 진리로서 이미 입증되거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령 진리일지라도 모르는 것으로부터 제시되는 반증이 가능한 가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설에 어떻게 도달했는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포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가설들이 어떻게 반증되며 또한 과학적 이론이 계속 제시되고 반박되는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접근해가며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설로서의 과학 이론이 계속적으로 반증됨으로써 진리에 한없이 접근해가는 과정을 ‘지식의 성장’으로 본 포퍼는 과학적 문제에 대한 시험적 해결책의 제시와 비판을 통해 오류의 제거, 즉 ‘시행착오의 방법’(trial-error method)⁹⁾ 혹은 ‘가설-연역적 방법’(hypothetical-deductive method)을 과학적 방법으로 제시했다. 그에게 있어서 과학은 문제에서 시작해 문제로 끝을 맺는다. 과학자들에게 주어진 최초의 문제 P1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추측되는 여러 가지 이론을 가설로 제시하도록 한다. 과학자들은 이 가설로부터 경험으로 시험할 수 있는 명제들을 연역해냄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사하게 된다. 경험적인 검사 과정에서 틀린 것으로 입증된 이론은 제거되고 남은 이론을 받아들인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검사 과정에서 탈락한 것은 틀린 것으로 입증된 혹은 반증 내지는 반박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것이라고 해서 참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비유적으로 말해 포퍼의 방법은 돌을 골라내는 것이지 옥을 가려내는 방법은 아닌 것이다.¹⁰⁾

9) 시행착오 개념이 과학에서 새로운 은유로 등장한 것은 다윈의 진화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다윈은 시행착오, 도전과 응전, 문제와 해답의 은유를 통해 유기체, 사회, 종은 그들 자신의 존재와 독립된 외적 자연에 의해 마련된 문제들에 직면하고, 그들은 꼭 맞는 답 하나가 발견될 때까지 다양한 답들을 시도하는 것으로 응답한다. 이러한 시행착오 개념은 심리적 발달과 학습의 수많은 이론들, 포퍼, 로렌츠, 캄블, 피아제와 같은 진화론적 인식론에 대한 은유가 되었다. 스티븐 로우즈외[1997], 이상원 옮김, 한울, 320쪽, 참조.

포퍼에게 있어서 인간의 지식은 대담하고도 창조적인 추측에 의한 다양한 이론의 제시와 서로 경쟁적인 이론들에 대한 비판적인 반박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이러한 과정은 도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_1 \rightarrow TT \rightarrow EE \rightarrow P_2$$

여기서 P_1 은 최초의 문제이고, TT는 시험대상인 잠정적 이론(tentative theory)을 가리키며, EE는 오류제거(error elimination) 과정을 나타내고, P_2 는 새롭게 제시된 진전된 문제이다.¹¹⁾ 달리 말해서 P_1 에서 P_2 으로의 진행은 ‘추측과 반박’(conjecture and refutation)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학 이론의 발전사로서의 인간 지식의 성장 역사는 그러한 추측과 반박의 반복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포퍼에게 있어서 위의 도식으로 나타낸 인간 지식의 성장 과정 체계는 변증법과 마찬가지로 과학 이전의 발전과 과학의 진전을 총괄한다.

3. 포퍼의 사회과학 방법론

포퍼는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을 토대로 『탐구의 논리』에서 확립한 방법을 사회과학에 적용시켜 단계적으로 사회를 개혁해가는 이른바 ‘점진적 사회공학’과 그러한 개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비판적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열린사회’(open society)를 주장한다. 여기서 포퍼는

10) 과학자들이 가설로 제시한 이론을 T라고 하고 T에서 연역해 낸 경험적 명제를 I라고 하면, 다음의 명제 $T \rightarrow I$ 가 참이다. 그런데 만일 경험적 검사 결과 I가 거짓임이 판명될 경우, 다시 말해서 $\neg I$ 임이 알려질 경우, 논리학에서 말하는 (후진) 부정식(modus tollens)에 의해 $\neg T$ 를 얻는다. 그러나 I가 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T가 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경험적 가설로서 과학 이론은 경험적 검사에 의한 반증(falsification)은 가능하지만 검증(verification)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Popper[1968], 76쪽을 참조할 것.

11) Popper[1963], 406~407쪽.

점진적 개혁을 옹호하는 자신의 사회이론, 즉 기대한 결과와 성취한 결과의 비교에 의해 통제되는 개혁이론이 지적 혁명의 이론인 과학적 방법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¹²⁾ 즉 이데올로기적 혁명은 그것이 아무리 과학적 혁명과 연관되어 있다 할지라도 불합리한 성격을 띠며 의식적으로 전통을 파기하는 반면, 과학 혁명은 아무리 진보적이라도 이전 과학자들의 업적을 계승 보전해야하기 때문에 전통을 파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학 혁명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포퍼의 논점이다.¹³⁾ 여기서는 포퍼의 「사회과학의 논리」(1969a)에서 제시된 27개의 테제를 중심으로 그의 사회과학 방법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포퍼에 의하면, 인식은 아는 것과 무지의 긴장에서 나오며, 지식은 지각, 관찰, 자료나 사실의 수집에서가 아니라 문제에서 시작한다. (테제1~4)¹⁴⁾ 문제의 대상은 이론적 문제뿐만 아니라 빈부, 문맹, 정치적 억압, 권리 침해 등과 같은 실천적 문제들을 사변화 함으로써 이론적 문제로 환원할 수 있다. (테제 5)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의 방법은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결을 구하는 것이다. 해결책은 제안되고 비판되어야 한다. 제안된 해결책이 계속적인 비판에 개방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제거된다. 과학의 방법은 신랄한 비판에 의해 통제되는 추측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중의 하나이다. 이는 시행착오의 방법이 비판적으로 발전된 형태이다. 과학의 객관성은 비판적 방법의 객관성에 있다. 이는 비판의 공격을 넘어서 있는 이론은 없으며, 논리적 비판의 주된 수단이 논리적 모순이 객관적임을 의미한다. (테제 6)

관찰, 측정, 통계적 자료의 수집, 귀납에 의한 일반화나 이론 형성을 통한 과학의 방법은 과학주의나 자연주의의 잘못된 방법이며 신화적 사고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과학은 여하한 가치판단과도 독립적이어야 한

12) Popper[1969b], 291쪽.

13) Popper, "The rationality of scientific revolution", in Hacking[1981], 106쪽.

14) 이하에 나오는 테제 번호들은 Popper[1963a]에 나오는 포퍼의 테제 번호를 가리킨다.

다. 포퍼는 과학의 객관성 물가치의 문제를 논하면서 실증주의 역시 잘못된 자연주의로 간주한다. (테제 7)

포퍼는 잘못된 자연주의가 승리한 예로서 2차 대전을 전후로 생긴 이론 사회학과 사회 인류학의 관계가 전도된 사례를 비판하며 관찰적, 기술적, 객관적 방법의 우세는 사이비 과학 방법의 승리라고 일축한다. (테제 8~10) 이를테면 생물학이나 사회학에서 불변하는 진화의 법칙을 찾는 것은 과학적 방법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명체나 인간 사회의 진화는 하나의 독특한 역사적 과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근거로 불변하는 일반적 과정에 관한 법칙을 세우는 것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⁵⁾

포퍼에 의하면, 과학적 객관성의 논리는 사회적 이념의 소산인 학파나 학자들의 경쟁, 비판적 전통, 사회 제도, 자유토론 등을 관대하게 다루는 국가의 권력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그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정치의 가능성을 형식적 자유라고 하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정치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¹⁶⁾

과학의 객관성이 과학자의 객관적 태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가정은 잘못이며, 자연과학자의 태도가 사회과학자의 태도보다 더 객관적이라는 믿음도 잘못이다. 자연과학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념에 강하게 대항하는 학파를 (예를 들면, 빛의 입자설과 파동설을 지지하는 학파) 형성할 수 있다. (테제 11) 과학의 객관성은 지배적인 독단을 비판할 수 있는 비판적 전통에 근거한다. 즉 과학의 객관성은 개별적인 과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사이의 상호 비판, 경쟁 등과 같은 사회적 산물이다. (테제 12)¹⁷⁾ 지식사회학도 과학적 객관성의 사회적 측면인 지식사회학 자체의 성격을 간과하고 있다. (테제 13)

여기서 포퍼는 유토피아적 계획을 주장하는 칼 만하임의 지식사회학이 과학 이전의 사고라고 비판한다. 사회과학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방식은

15) Popper[1960], 108~109쪽 참조.

16) 홍윤기 편역[1982], 37쪽.

17) Popper[1966], vol 2, 221쪽 참조. 포퍼는 과학적 비판과 진보에 있어서 협동, 상호주관성, 공적 방법 등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완전주의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배격되어야 한다. 포퍼에 따르면, 우리는 지상에 천국을 만들 수 없고, 사태를 조금씩 개선할 수 있을 뿐이다.¹⁸⁾

진리에 대한 객관성과 불가치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러한 모순의 해결책으로 모든 가치로부터 자유를 요구하는 대신 과학 외적인 문제와 순수 과학적 가치를 구분하는 과학적 비판에 주력할 것을 포퍼는 제안한다. (테제 14)

순수 연역논리는 합리적 비판의 논리이자 반박의 논리가 된다. 즉 우리가 논리적인 어떤 주장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주장은 반박될 수 있다. 모든 과학에 있어 우리는 연역체계로서의 이론과 더불어 작업을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연역체계는 설명의 시도이며 과학적 문제, 즉 설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연역체계는 합리적으로 그 결과를 통해 비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논리가 비판의 도구가 되는 것은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테제 15~19)

포퍼는 ‘진리’와 ‘과학적 설명’의 개념을 설명한다. (테제 20) 우리의 지식은 가설로 제시된 이론을 비판내지는 반박함으로써 성장해가는 데 반박이란 그 이론이 근거가 없는 거짓임을, 다시 말해 참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달성된다. 이처럼 포퍼에게 있어서 과학은 현실적으로 진리를 성취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향해 끝없이 접근하는 과정에서 진리가 규제적(regulative)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역할을 한다. 규제적인 이념으로서 ‘진리’ 개념에 관해 포퍼는 타르스키의 절대적 진리 개념의 정의를 받아들인다. 그는 이제까지 이데올로기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주된 원인이었다고 비판하면서 타르스키가 절대적 진리 개념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킨 것을 현대 논리학이 거둔 중요한 결실 중의 하나로 꼽았다.

타르스키의 진리 개념이 절대적 개념인가 하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18) Popper[1960], 75쪽.

있지만, 포퍼는 특정한 언어 체계, 즉 어떤 대상 언어에 속한 문장이 사실과 대응되는 관계에 있을 때 그 문장이 참이 된다는 이른바 ‘진리 대응설’(truth correspondence theory)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포퍼는 진리 규제적 개념으로서 타르스키적 의미에서 ‘참’을 ‘사실과의 대응’으로 아무 문제없이 대치할 수 있다고 믿는다.¹⁹⁾

규제적 원리로서 진리가 담당하는 역할을 포퍼는 구름에 둘러싸인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즉 진리의 확보는 그 전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제와의 대결을 안내자로 삼아 끊임 없이 전진함으로써 가능하다. 규제적 이념으로서 진리 개념은 ‘정확성’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정확성의 개념은 이론에 있어 하나의 이상으로서 규제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며 객관적 기준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²⁰⁾ 또한 규제적 이념으로서 진리관은 과학이 진리에 접근한다는(approximation to the truth) 진리근사치, 혹은 진리근접성(truth verisimilitude)의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과학을 지속적인 진리의 탐구로 해석하는 포퍼의 주된 관점이기도 하다.²¹⁾

모든 설명의 기본적 도식은 이론을 구성하는 법칙들과 특정한 관련 상황을 기술하는 몇 가지 초기 조건들을 설명의 전제 혹은 설명항(explicans)으로 하여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설명하려는 명제, 다시 말해 피설명항(explicandum)을 연역적으로 이끌어내 결론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짜인다. 포퍼에게 이러한 설명의 도식은 자연과학은 물론 사회과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포퍼가 볼 때 순수하게 관찰에 의한 (귀납적) 과학은 없으며 단지 우

19) Popper[1963], 223쪽. 포퍼는 ‘사실과의 대응’이라는 개념을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눈은 회다”와 같은 진술이나 주장은 눈이 회고 그리고 눈이 흰 경우에 한해서만 사실과 대응한다.

20) 같은 책, 224쪽. 한 이론이 정확하게 구성되면 될수록 반증가능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반증주의자는 진공상태에서 빛의 초속은 대략 $300 \cdot 10^6$ m라는 진술보다는 $299.8 \cdot 10^6$ m라는 진술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후자가 전자보다 반증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일철 외 역, 『현대의 과학철학』, 서광사, 1990, 86쪽, 참조.

21) 같은 책, 223쪽, 참조.

리가 의식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론화는 과학만이 존재할 뿐이다. (테제 21) 따라서 과학적 지식은 관찰진술로부터 귀납에 의해 도출된다는 소박한 귀납의 원리가 논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론이 관찰에 우선한다.

심리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은 주로 사회적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은 사회적 관념들을 전제한다. 이는 심리적 용어로 사회를 철저히 설명하거나, 사회를 심리학에 환원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테제 22)

사회학은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자율적이다. 첫째, 사회학은 사회적 현상으로서 경쟁 같은 인간 행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테제 23) (객관적) 이해의 사회학도 심리학으로 환원될 수 없다. 둘째, 심리학도 사회과학의 한 분과이다. 즉 언어, 가족, 모방 등과 같은 관념을 사용하지 않고서 학습, 사유, 정신분석과 같은 심리학적 관념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테제 24) 위와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사회과학의 임무는 심리학과는 별개로 사회적 환경 요인을 독립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자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객관적 이해 혹은 상황 논리(situational logic)를 지향하는 사회과학은 모든 주관적, 심리적 관념들과는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즉 소망, 동기, 기억, 연상 등과 같은 심리적 요소를 상황적 요소로 전환해 분석한다. 다시 말해서 소망은 객관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실로 특징짓고 변형될 수 있으며 기억, 연상 등은 이론 혹은 정보가 객관적으로 갖추고 있는 사실로 특징지을 수 있다. (테제 25)

위에서 기술된 상황 논리의 설명은 합리적이며, 이론적인 재구성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그리고 도식화된 것으로 엄격히 말해 논리적 의미에서 진리의 접근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시험 가능한 설명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황 분석은 합리적이며, 경험적으로 비판 가능해야 하며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테제 26) 상황 논리는 우리가 그 안에서 행동하는 물리적 세계를 가정한다. 즉 사회적 세계, 제도 등을 가정한다.

이러한 제도는 독특하게 사회적 환경의 성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제도들은 행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개인들이 제도 속에서 제도를 위해 혹은 제도를 통해 행동한다. (테제 27)

포퍼는 이상과 같은 27개의 테제를 점진적 사회의 근본 문제로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이론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고, 그것이 개연적임을 증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이론을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종종 보다 나은 이론을 구별해낼 수 있다.

4. 포퍼의 방법론에 대한 몇 가지 비판들

포퍼에게 있어서 이론은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 지성이 자유롭게 만들어낸 가설적 추측이다.²²⁾ 그러므로 반박될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이론의 과학적 내용은 제로이다. 그러한 이론은 과학적이 아닌 형이상학적 내용을 지닌다. 이 기준에 따라 포퍼는 변증법이 형이상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포퍼는 『탐구의 논리』에서 일관성과 반증가능성의 원리를 경험적 체계(과학)의 연역적 원리의 토대로 삼는 한편²³⁾, 1940년 「변증법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문에서는 모순을 내포하는 이론은 이론으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면서 모순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헤겔-마르크스의 변증법을 강화된 독단주의의 한 형태라고 격렬히 비난했다. 그는 헤겔-마르크스의 모순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순수이성비판』의 선험적 변증론에 등

22) Popper[1968]의 머리말로 인용한 노발리스(F.v.Novalis, 1772~1801)의 다음과 같은 말은 포퍼가 내세우는 가설-연역적 방법과 비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론(가설)은 그물과 같다. 그물을 던지는 사람만이 고기를 잡을 수 있다.”

23) Popper[1969], 91~92쪽.

장하는 칸트의 이율배반(Antinomie) 개념에 동조한다. 그에게 있어서 모순은 이론과 사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모순, 즉 이론과 사실 간의 불일치를 지적해내는 비판이 없다면 이론을 변화시킬 지적인 진보가 없는 것이다. 변증법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포퍼도 모순이 진보에 효과적, 생산적, 효율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모순의 지적이 우리의 이론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해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결단에 달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변증법적 운동의 유일한 추진력은 정립과 반정립 간의 모순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결단이다. 그러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은 모순된 두 사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어떤 신비스러운 긴장이 아니다. 그것은 모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우리의 결단일 따름이다. 만일 모순을 받아들이면 모든 과학 활동이 포기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과학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한다. 그 이유는 서로 모순되는 두 진술로부터는 어떠한 진술이라도 타당하게 추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⁴⁾ 따라서 포퍼는 변증법을 ‘기술적’ 특성을 갖는 반면에, 형식 논리는 ‘기본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변증법보다 본질적으로 잘못을 제거하는 시행착오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며, 헤겔의 논리학을 읽기보다는 근대 공학의 기초인 아르키메데스의 역할을 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²⁵⁾

방법론 논쟁을 통해 포퍼와 아도르노의 입장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는 비진리다’라는 부정적 변증법(Negative Dialektik)으로 알려진 아도르노의 입장은 사회과학의 논리를 ‘사회학의 구체적인 정치 양식’으로 규정하고 포퍼가 내세우는 연역 논리를 비판했다. 아도르노가 ‘대상의 우위’라는 입장을 내세웠다면, 포퍼의 방법론은 ‘문제의 우위’에 비중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아도르노는 구체적인 사회의 구조에서 생기는 실제의 모순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러한 실제의 모순은 진술의 모순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에서 포퍼의 연역 논

24) 같은 책, 317쪽.

25) 같은 책, 335쪽.

리적 방식을 비판했다.²⁶⁾

포퍼와 아도르노의 논쟁이 지닌 대립적 측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실재론적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이론 체계, 즉 하나의 기술 체계(descriptive system) 속에서 세계는 특성을 가진 대상으로 구성된 세계가 될 수 있으며, 언어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대상들에 대하여 물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물음을 생각할 수 있다. 과연 아무런 이론의 도움 없이 사회 구조의 실질적 모순을 수용할 수 있는가? 혹은 눈앞에 닥친 모순의 제 현상을 대립의 긴장 관계가 무르익도록 기다려야만 하는가?

둘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포퍼는 낙관적인 반면, 아도르노는 부정적, 비판적이다. 서구사회에 대한 포퍼의 낙관론적 견해는 다음의 구절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더 많은 개선의 필요가 있지만 이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인간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려는 소망이며, 천국을 이 땅위에 실현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지옥을 만들어내는 데 그치고 말았다.”²⁷⁾

그러나 비판적 합리주의에 기초해 ‘점진적 사회공학’²⁸⁾을 전개했던 그의 열린사회에 관한 이론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열린사회는 비판적 토론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정된 사회가 아니다. 이에 반해 독재(전체론적) 체제는 그 체제가 언제나 안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일체의 비판적

26) Adorno[1969b], 108쪽. 실증주의 논쟁 과정에서 아도르노가 제시한 비판적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주로 역사성 이론, 변증법 논리 그리고 총체성의 원리로 요약될 수 있다. 이하 상세한 논의는 권기철[2006], 『헤겔과 독일 관념론』, 철학과현실사, 350~352쪽 참조할 것.

27) 홍윤기[1982], 17쪽.

28) 포퍼는 점진적 사회공학과 관련해서 다음의 두 가지 명법을 제시했다. ① 추상적인 선의 실현을 위해 힘쓰지 말고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도록 노력하라. ② 모든 악의 제거는 직접적인 수단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Popper[1963], 361쪽. 그러나 필자는 공동체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공의 선에 대한 탐구와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오히려 악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토론을 봉쇄한다. 이는 그 체제를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이상사회로 보려는 유토피아적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포퍼는 열린사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²⁹⁾ 한 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며, 그 토론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제도는 사회의 약자와 자유를 보호하기 때문에 존립한다.

이러한 포퍼의 정치적 이념은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가 국가적이며, 사회적 제도에 의해 구성원 중의 약자를 강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의 정치철학은 지속적인 비판적 물음을 추구하려는 자신의 과학적 방법론과 일맥상통한다. 정치적 제도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포퍼의 견해는 “누가 지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 지배자에게 영향을 주어 통제하는가?”³⁰⁾ 하는 문제로 압축될 수 있다. 그렇지만 포퍼가 주장하는 대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열린사회 체제 역시 다수결에 의한 다수의 횡포를 견제할 만한 대안이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하버마스는 포퍼가 ‘이론과 실천의 동일성의 원리’를 범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인식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태도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현존하는 사회를 실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회에 대해 진지한 이론적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나 대화에 의한 체제 변경 및 그의 전략은 후기 산업사회에서 부의 평준화와 아울러 고등 교육의 보편화 현상에 따른 기능 관료층, 전문가 그리고 지식 계급의 양적 질적 팽창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현상은 비판의 대상인 후기 자본주의의 긍정적 성과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대화적 이성과 상호주관적 의사소통의 활성화는 곧 모든 체제의 모순을 변혁시키는 실천적 동력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내포한다.³¹⁾

29) 홍윤기[1982] 37~39쪽. 포퍼가 주장하는 열린사회와 반대가 되는 폐쇄사회는 플라톤, 헤겔, 마르크스, 나치즘 등이 지향하는 유형의 사회이다.

30) 같은 책, 38쪽.

31) 권기철[2006], 344쪽.

이러한 비판에 대해 포퍼는 다른 사람들보다 혁명가들이 사회적 병폐, 즉 모순에 민감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혁명은 혁명가들이 의도한 사회와는 아주 다른 사회를 산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반박했다. 포퍼는 이해할 수 없는 거창한 말을 구사하는 좌파 이론가들이 현학적이고 고답적이면서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³²⁾

포퍼는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실천이 고도로 사변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폭력혁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반지성적이며 반이성적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 즉 ‘반대의 존재’가 존재하는 열린사회만이 악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나는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마찬가지로 국가의 폭력과 정부 관료의 횡포를 증오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가는 필요악이다. ... 인간은 폭력으로 매우 용이하게 인간성을 파괴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갈등이 더욱 더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이성적 사회를 위해 힘쓰는 것이다. 나는 ‘보다 이성적’이라고 말했다. 즉 완전히 이성적인 사회란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의 사회보다 더욱 이성적인 사회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회를 추구해야만 한다. 이것은 현실적 요청이지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다.³³⁾

포퍼가 과학적 혁명의 합리성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실천’보다는 ‘이론’에 우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론이나 관념이 그 자체의 목적은 아니며 바로 그 점에서 실천이 우위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포퍼는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포퍼로 하여금 보수적인 정치적 결론을 지지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퍼트남의 통찰은 설득력이 있다. 즉 실천의 우위를 파악하지 못한 포퍼의 ‘구획기준’의 원리는 과학에서 비판적 성향을 설명적 성향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것과 상충한다. 이는 실천의

32) Popper[1969b], 298쪽.

33) 홍윤기 역[1982], 44-45쪽.

우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곧 바로 성공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된다.³⁴⁾

방법론 논쟁은 상대적으로 아무런 결실 없이 대립의 양상만을 노출했지만, 한 편으로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표면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실증주의라는 말이 방법론 논쟁에서 ‘기계 속의 유령’³⁵⁾이 된 것처럼 이 말을 언어적으로 정의하기도 어렵지만, 실증주의를 고정적이 아닌 역동적 이면서도 역사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녀온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방법론 논쟁은 궁극적으로 과학주의의 쟁점인 만큼 최근의 과학철학에서는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시되고 있다. 급진적 상대주의 과학철학을 주장하는 파이어아벤트는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를 오늘날 현존하는 가장 리버럴한 실증주의적 방법론으로 특징짓는 한편, 과학적 활동의 수준과 그것을 다른 영역에로의 확장이라는 면을 지적하면서 포퍼의 입장에 이의를 제기했다.³⁶⁾ 또한 그는 비판적 합리주의가 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 혁명을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태동하여 정치학은 물론 인간의 사적 행위에까지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하버마스를 비롯한 비판이론가들이 포퍼를 실증주의자로 취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파이어아벤트는 과학과 비판적 합리주의의 규칙은 양립할 수 없다는 회의적 견해를 보였다.³⁷⁾

포퍼는 과학이 진리에 부단히 다가가는 ‘진리 근접성’을 지식의 성장으

34) Putnam, “The Corroboration of theories”, in Hacking[1981], 78~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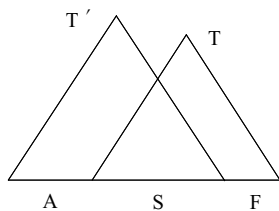
35) Frisby의 서문 참고.

36) Feyerabend[1975], 171쪽. 상대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퍼트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대주의 매력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형이상학적 토대를 지니지 않고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합적 입장을 제공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상대주의를 하나의 입장으로서는 진술하려고 노력하자마자 그것은 모순에 빠지거나 유아론(또는 아마도 ‘나’ 대신에 ‘우리’를 가진 유아론)에 빠진다는 사실이 종종 지적되어 왔다.” 퍼트남[1998], 『과학주의 철학을 넘어서』, 원만희 옮김, 철학과현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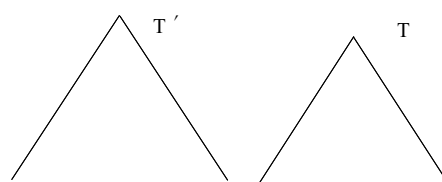
37) 같은 책, 175쪽.

로 본 반면, 파이어아벤트는 그것을 하나의 포괄적인 이론이 다른 포괄적인 이론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과정이 손실과 동시에 이득을 내포한다고 하면서, 포퍼식의 과학의 합리성 내지는 우월성을 뒷받침하는 논의 방식은 서로 경쟁하는 이론이 지니고 있는 이른바 ‘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³⁸⁾

이렇게 해서 후기 실증주의의 파이어아벤트의 극단적인 상대주의 과학철학은 포퍼의 과학철학과 완전 상충된다. 그에 의하면, 하나의 이론 체계 T와 또 하나의 이론 체계 T' 사이에는 근본적인 단절이 있으며 하나의 개념이 서로 다른 이념 체계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개념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론 체계들 사이에는 어떠한 공약성도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어떠한 합리적 대화도 불가능하다. (그림 1과 그림 2를 참조)³⁹⁾



(그림1)



(그림2)

그림 1에서 T는 T'으로 대체된다. T'은 왜 T가 F에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며, 동시에 T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S에서 성공한 이유

38) Feyerabend[1974], 219~222쪽, 참조.

39) 여기서 언급한 ‘공약불가능하다’는 용어는 1962년에 나온 쿤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와 파이어아벤트의 논문「설명, 환원, 경험론」에 나온다. 파이어아벤트는 쿤과 자신이 유사한 생각을 동일한 낱말로 사용할 수 있었던 예정조화에 놀랐음을 밝힌 바 있다. 쿤이 양자의 차이점을 지적하자면, 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17세기 과학적 세계관을 비교한 반면, 파이어아벤트는 고전적 천체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비교했다.

를 설명한다. 그리고 T' 은 추가적인 예측(additional prediction) A 를 한다. 그림 1과 같은 구도가 작동한다면, T 와 동시에 T' 으로부터 정의 또는 상호관계 가설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이 없이 따라 나오는 진술들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림 2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고 판단을 끌어들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림 2에서는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T' 이 T 보다 진리에 더 가깝다거나 혹은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T 의 영역과 T' 의 영역은 앞에 혹은 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중첩도 있을 수 없으며, 각 이론들 간에 적용될 수 있는 반박의 강도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약불가능성을 이론 선택의 문제에 적용했을 때, 이론들 간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대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일련의 연역적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이론의 논리적 비교의 가능성을 배제한 후에 남는 것은 심미적 판단, 취미에 관한 판단, 형이상학적 편견, 종교적 소망 등 우리의 주관적 바람뿐이다.⁴⁰⁾

과학이론의 공약불가능성을 주장하는 파이어아벤트의 입장은 궁극적으로 “어떠한 것도 좋다”(anything goes)는 이론적 다원주의와 반방법론주의를 옹호한다. 이러한 급진적 성향의 과학철학은 합리적이지 못한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직된 과학의 속박에서 벗어나 후기 자본주의에 있어서 진정한 개인의 식과 자율성의 회복을 강조한 그의 생각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하버마스 역시 파이어아벤트와 비슷한 맥락에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화된 과학기술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⁴¹⁾ 1987년에 출간된 그의 『이성이여 안녕』(Farewell to Reason)

40) 같은 책, 285쪽. Feyerabend, “Explanation, Reduction and Empiricism”, 49쪽, 참조.

41) 위르겐 하버마스[1993],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 하석용/이유선 옮김, 이성과학실사, 참조.

은 이성과 과학을 중심으로 한 근대 이후 서구 세계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즉 확실성을 탈피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하는 파이어아벤트에 따르면 과학적 지식만이 신성불가침하고 참된 지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단적 사고에 불과하다.

5. 맺는 말

경험주의 과학철학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귀납의 문제를 반증주의로 해결한 것은 포퍼의 공과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반증가능성에 토대를 둔 포퍼의 과학철학은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가 있다. 달리 말해서 포퍼는 거짓의 유용성을 지적 탐구의 전면에서 내세운 철학자이다. 또한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포퍼의 말처럼 완전히 현실적으로 완전히 이상적인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 기존의 사회보다 점진적으로 보다 이상적 사회에 다가가려는 그의 사회과학적 주장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주장하는 포퍼에 따르면, 제3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 의미에서의 관념의 세계는 제1의 영역인 물리적 (상태의) 세계와 제2의 영역인 정신적 (상태의) 세계를 구획하는 일이다.⁴²⁾ 이러한 영역의 경계들을 구획하는 데는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는 과학주의에 토대를 둔 이론의 구축이 전제되어 있음을 포퍼는 주장한다. 필자 역시 이러한 포퍼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그렇지만 필자가 보건대 포퍼의 이러한 주장에는 나름대로 비판의 여지가 있다. 포퍼의 사회과학방법론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과학철학의 방법론을 사회과학의 방법론에 적용했을 때, 우리는 과학과 사회과학이 과연 동일한 범주 체계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담한 추측과 반박을 통한 객관적 지식의 성

42) Popper[1972], 154-155쪽 참조, 포퍼에 따르면 세계 1과 세계 3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고 다만 세계 2의 매개를 통해서만 상호작용한다.

장을 주장한 포퍼의 논점은 과학에서는 분명히 설득력을 갖는다. 그렇지만 포퍼의 사회과학 방법론으로 (우리의) 생활세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갈등적 요인들을 다루는 사회과학적 문제들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주된 이유는 생활세계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담론들이 (큰 그물망에서 빠져나오는 다양한 고기들이 연상되는 것처럼) 이론이라는 그물에 그렇게 잘 걸리지가 않기 때문이다. 철학을 실천(활동)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이론을 구축하는 학문으로 보려는 포퍼의 사회과학방법론은 결과적으로 삶과 철학의 경계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달리 말하면 그의 사회철학은 사실과 가치(규범)를 구분하는 데서 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실증주의의 가치중립성은 현대사회의 불합리한 문제들에 대한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합리적 토론과 비판을 중시하는 그의 비판적 합리주의 역시 정치적으로는 엘리트 중심의 보수주의에 경도될 수밖에 없다. 그 주된 이유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엘리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제반 갈등적 요인들의 해소책으로 필자는 『과학주의 철학을 넘어서』라는 저서에서 존 듀이의 정치철학에 의거해 민주주의 성장가능성의 철학적 근거를 제시한 퍼트남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아진다.

듀이가 주장한 것처럼,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타인들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에너지를 해방시켜 줌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행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는 경멸의 대상도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는 어떤 가능성의 상징이다. 가능성이란 모든 구성원들의 능력을 개발시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고, 사회 정책의 설계와 시험에 참여하고, 결과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다수결의 원리가 저절로 민주주의가 된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오도된 것이다. 거슬리는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다수는 다수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엘리트와 마찬가지로 공동 탐구라는 지적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⁴³⁾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에 토대를 둔 신실용주의가 우리의 생활세계 곳곳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른바 자본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된 시장 논리가 판을 치는 시장전체주의 사회에 대해서 열린사회를 주장한 포퍼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필자로서는 궁금할 따름이다. 특히 분배보다는 성장에 치우치는 분배적 정의가 실종된 우리 사회에서 포퍼의 사회과학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지가 필자로서는 회의적이다. 쟁점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문제해결을 의사소통의 제1원리로 생각하는, 이른바 명민한 이성적 사고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에 “항상 영민함의 척박한 산정에서 내려와 어리석음의 푸른 계곡으로 들어가라”⁴⁴⁾는 비트겐슈타인의 반어적 경구를 심층적으로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⁴⁵⁾

(서울시립대학교)

43) 퍼트남[1998], 『과학주의 철학을 넘어서』, 원만희 옮김, 철학과현실사, 267~268쪽.

44)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1992], 『문화와 가치』, G.H. 폰 리히트 엮음, 이영철 옮김, 천지, 150쪽.

45) 이 글은 2008년 9월 중앙철학연구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특히 본 논문에 대해 많은 비판적인 논평을 해주셨던 김진형 선생님과 익명의 두 심사 위원에게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권기철[2006], 『헤겔과 독일관념론』, 철학과현실사.
- 비트겐슈타인[1992], 『문화와 가치』, 폰 리히트 역음, 이영철 옮김, 천지.
- 위르겐 하버마스[1993], 『이데올로기로서의 기술과 과학』, 하석용/이유선 옮김, 이성과현실사.
- 스티븐 로우즈외[1997],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 이상원 옮김, 한울.
- 퍼트남[1998], 『과학주의 철학을 넘어서』, 원만희 옮김, 철학과현실사.
- 홍윤기 편역[1982], 『혁명이나 개혁이나?』, 사계절.
- 피터 야니히[2004], 『구성주의 과학철학』, 이기홍 옮김, 철학과현실사.
- Adorno, T.W[1969a], *Der Positivismusstreit in der Deutschen Soziologie*, engl. tr. by G. Adey and D. Frisby, *The Positivism Dispute in German Sociology*, New York, 1976.
- _____ [1969b], “On the Logic of the Social Science”, in Adorno[1969a].
- Chalmers, A.F[1981], *What is the Thing called Science?*, 신일철외 옮김, 현대의 과학철학』, 서광사, 1990.
- Feyerabend, P[1962], “Explanation, Reduction and Empiricism”, in H. Feigl & G. Maxwell ed., *Scientific Explanation, Space and Time*, Minneapolis, 1962.
- _____ [1974], “Consolation for the Specialists”, in Lacatos and Musgrave ed.,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 1974.
- _____ [1975], *Against Method: Outline of an Anarchist Theory of Knowledge*, London: New Left Books.
- Hacking, I[1981], *Scientific Revolution*, Oxford.
- Popper, K.R[1960], *The Poverty of Historism*, London.
- _____ [1963], *Conjecture and Refutations*, London.
- _____ [1966],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London.

- _____ [1968],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London.
- _____ [1969a], “The Logic of Social Science”, in Adorno[1969a].
- _____ [1969b], “Reason or Revolution?”, in Adorno[1969b].
- _____ [1972], *Objective Knowledge*, Oxford.
- _____ [1981], “The Rationality of Scientific Revolution”, in Hacking
[1981].
- Putnam, H, “The Corroboration of theories”, in Hacking[1981].

Critical Investigation on Logic of Popper's Social Science

Man-Yoep Park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problem 'Critical Investigation on Logic of Popper's Social Science'. In this paper, problems like a justification of logic of Popper's social science will be discussed. On the basis of these problematic consciousness, I will take as following problems: (1) Positivism debate and Popper's falsificationism. (Popper is a peculiar philosopher that claim to stand for utility of false.) (2) Popper's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that is suggested in Popper's *The Logic of Social Science*. Also, I will discuss critical point of view on Popper's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centering around Adorno, Habermas and Feyerabend. It is well known to us that Popper's social philosophy is based on 'critical rationalism'. In other words, his social philosophy is called 'open society'. But his critical rationalism that is centering on construction of theory has a limitation that should be divided the boundary of life and philosophy. Therefore we can conclude that Popper is politically conservatist.

My critical point on Popper's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can be abstracted as follows. First, methodology of science and social science can't be compatible as a same category system. Second, Popper's methodology of social science can't be applied in our Korean society that is lost distributive justice.

Key Words: logic of social science, positivism debate, falsificationism, hypothetical deductive method, critical rationalism, open society, Lebenswelt.

박만엽 e-mail: smullyan@hanmail.net